

## 희망세상 (2006년 9월호 / 48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6년 9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가?

지난 6월 9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에서 지난달까지 팔레스타인인들

은 약 170명, 레바논인들은 1천여 명, 이스라엘인들은 60여 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구 미디어들은 이번 전쟁을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 병사 3명을 생포한 것을 그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전쟁

은 지난 6월 9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10명

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면서 시작되었다. 상호 교

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체포된 것이며

이들은 전쟁 포로인 것이다. 이스라엘 병사를 생포한 직후

하마스는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 중 여성과 미성년자를 이스라엘 병사와 맞교환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은 이를 거부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를 비롯한 점령지에 무차별한 폭격을 감행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 26명과 장관 5명 등 지도부 61명을 체포하여 현재 수감 중이다.

참고로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는 1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인들이 수감돼 있는 반면 팔레스타인 감옥과 레바논 감옥에 이스라엘인은 단 한명도 없다.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점령에 항거한 죄목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이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를 생포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 이번

# 이스라엘-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글 · 홍미정 pales4u@hanmail.net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목적이 생포된 이스라엘 병사의 석방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점령된 영토 · 영토 소유권 분쟁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1967년 전쟁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다. 1967년 전쟁으로 점령된 아랍 영토를 되찾겠다는 아랍인들의 요구와 점령한 영토를 결코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점령 상태를 강화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정책이 충돌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사 훈련과 무기 제공 등을 통해서 하마스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란의 지원으로 창설된 이슬람주의자 단체다. 이 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아랍 영토 점령정책’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스라엘 지원’이 지역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난하면서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해방, 제국주의 퇴출’을 대의로 내걸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헤즈볼라는 1983년 베이루트의 미 대사관을 폭탄 공격하여 63명을 살해하였고, 같은 해 베이루트에 주둔한 미군 사령부와 프랑스군 사령부를 공격하여 미군 241명, 프랑스군 58명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프랑스군과 미군은 즉각 철수하였다.

2000년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여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레바논인들,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아랍 세계에서 영토 해방자로서의 지위를 각인시켰다. 2000년 이후 남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영역이 되었다. 남부 레바논은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에서 이스라엘 국가 영역에서 추방된 팔레스타인인들과 1967년 전쟁에서 동 예루살렘, 서안, 가자로부터 추방된 팔레스타인

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헤즈볼라의 절대적인 후원자들이다. 이것이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대의를 적극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전쟁 프로그램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에서 아랍 국가의 패배는 레바논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투쟁을 활성화시켰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1968년 대규모의 1차 레바논 침공을 강행하였고, 레바논 정부에게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해체하도록 요구하였다. 1974년 레바논을 재침공한 이스라엘이 레바논 기독교 무장단체인 팔랑헤를 지원하면서 기독교도와 무슬림들의 내전을 유도하였다. 이 때 팔랑헤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들을 무차별 공격 · 파괴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 무슬림 빈민 3천 명 이상이 집단 학살당하였다. 결국 레바논 내의 기독교도와 팔레스타인 난민과 무슬림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내전이 시





작된 것이다.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다시 침공하였다. 이때 이스라엘과 공조한 팔랑헤 대원들이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 무슬림 빈민 4,700명 이상을 집단 학살하였다. 이 전쟁 때에 헤즈볼라가 창설되면서 이스라엘, 팔랑헤 - 팔레스타인 난민, 헤즈볼라의 세력 구도가 형성되었다.

2006년 7월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지역들뿐만 아니라 공항과 도로, 다리 등 레바논의 핵심 기반시설을 파괴했다. 이것은 헤즈볼라 파괴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레바논 정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한 책임을 헤즈볼라에게 묻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납치하면서 이 전쟁을 유발하였으며 이 전쟁을 통해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시킬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핵심 기반시설을 파괴한 것은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와 대립각을 세우도록 하여 내전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9일 수니파 출신의 사니오라 총리는 시아파 ‘헤즈볼라와의 연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레바

논 점령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내전을 유발시키려했던 이스라엘의 전쟁 프로그램이 이번 전쟁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 이슬람주의자들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정치 세력화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내세우는 이슬람주의 운동은 가장 강력한 사회 세력인 ‘모스크’를 중심으로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회봉사 등을 통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대다수 가난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현재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였다. 2005년 6월 레바논 총선에서 헤즈볼라는 총 128명의 의회 의원 중 14명을 당선시켰고, 총 25명의 내각에 2명의 헤즈볼라 출신 장관이 처음으로 진출하는 등 제도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하마스가 처음으로 의회 선거에 참가하여 총 132석 중 74석을 장악하면서 선거 돌풍을 일으켰다. 현재 하마스는 단독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 정당인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의회와 내각에 각각 입성한 것을 계기로 아랍 전역에서 반이스라엘, 반미 저항운동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야만적인 공격으로 인한 대량 학살의 참상이 중동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동의 민심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편으로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다. 이제 친미 아랍 정권들조차도 이 민심의 향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던 요르단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친미파로 알려진 레바논의 푸아드 사니오라 총리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해체 요구’에 대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군’을 요구함으로써 헤즈볼라와 연대하고 있다. 이것은 1974년과 1982년, 이스라엘의 침공과 함께 발생했던 레바논 내전과는 전혀 다른 레바논 내의 세력 구도다.

### 헤즈볼라의 위상 강화와 아랍 정치 구조의 지각변동

지난 7월 26일에 발표된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Beirut Center for Research and Information)’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바논인들의 87%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헤즈볼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조사보다 무려 29%가 상승한 수치다. 이번 여론 조사에 참가한 기독교인의 80%, 드루즈의 80%, 수니파의 89%가 시아파 헤즈볼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2005년 7월에는 기독교인의 74%가 헤즈볼라의 저항을 지지했다. 이 여론 조사는 이번 전쟁으로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물론 헤즈볼라의 핵심 지지기반인 비시아파 사회에서도 헤즈볼라의 저항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서구 언론들은 레바논이 다종교, 다종파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전개되면서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종교나 종파를 강조해온 기존의 주장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된 영토’와 ‘추방된 주민’이라는 분쟁의 핵심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 분쟁과 관련된 종교,



종파 논쟁은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인들과의 영토 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사해온 ‘분할 지배 전략’이라는 오래된 점령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의도했던 내전과는 정 반대로 레바논인들이 종교와 종파를 넘어서서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쟁 프로그램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강화된 헤즈볼라의 위상은 이스라엘의 압살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친미 정권들이 정권을 잡았던 중동 아랍 전역의 정치 세력 구도에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www~~

#### 글 사진제공 홍미정

2005년 1월 팔레스타인 수반 선거와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국제선거감시단 활동, 2002년 팔레스타인 라말라 근교의 비르제이트대학에서 수업을 들었고,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국제문제연구소(PASSIA)에서 연구를 했으며, 현재도 PASSIA와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다. 현재 한국외대 연구교수, 경희대학 강사, 프레시안 기획위원으로 활동